

전남 예고 이어 예술중 개교...연착륙 관심

내년 3월 음악과·미술과 2개과 20명씩 모집

코로나19 '예고 시련' 딛고 안정적 개교 올인

전남 동부권의 첫 공립 예술특목고인 한국창의예술고에 이어 예술중학교가 2022년 문을 연다.

개교와 동시에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예술고의 시련을 딛고 동반 연착륙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최근 한국창의예술중학교(가칭)를 예술 계열 특성화중학교로 지정·고시했다.

예술중은 2022년 3월 미술과와 음악과 각 1학급, 학급당 20명씩 모두 40명 규모로 개교할 예정이다. 110

억원 인력의 예산을 들여 광양 창의 예술고 부지와 맞닿아 건립될 계획이다. 특성화중 지정 기간은 2026학년도까지 5년이다.

개교하면 상급학교인 예술고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2018년 10월, 광양시가 초등 2~5학년 학부모 3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0%가 '예술고와 연계한 예술중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고, '시기 상조' 14.3%, '필요 없다'는 4%에 그쳤다. 예술중이 들어서면 '잘될 것'이라

는 응답은 과반인 51.3%에 달했고, '예술중이 생기면 자녀를 보내겠다'는 학부모도 62.3%나 됐다. 광양시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교육청에 예술중 조기 설립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 심사와 개교 후 조기 안착할 수 있느냐다.

사업비가 100억원이 넘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예술고가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모집과 첫 학기 운영에 일부 미숙함을 드러낸 점이 걸림돌이다.

실제로 창의예술고에서는 첫 전국 단위 모집에서 정원 미달(60명 중 55명 모집)이 발생했고, 개교 4개월 만에 인건이나 정원 등지에서 온 학생들이 전공교사가 없다는 이유 등으

로 자퇴서를 제출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개교 초기 어려움이 많았다"며 "강사진에 수도권 거주자들이 많아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진행 중이고, 약기 등도 속속 세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투자심사는 10월 말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연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심사를 통과하면 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촘촘한 연계교육으로 교육적 원위 효과 기대된다"고 전했다.

창의예고는 부지 3만5649㎡에 총 공사비 320억을 들여 교사동과 다목적강당, 실기실, 개인연습실, 기숙사 등을 갖춘 연면적 1만1010㎡ 규모로 지난 3월 개교했다.

광주 교사들 수업나눔 영상 제작

2학기 원격·등교수업의 '수업방식 변화 모색'



광주시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중심 수업 운영에 따른 학생 참여형 수업 및 과정중심평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웨이! 대세는 블렌디드!' 영상 1~3편을 제작했다.

1~2편은 광주시교육청 유튜브 '딩동댕 연수마당'에 지난 1일 탑재했고, 3편은 3일 공개할 예정이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원격수업의 변화를 모색하는 수업 나눔 영상 '그웨이! 대세는 블렌디드!'는 원격·등교 병행수업에서 학생의 배움과 상호작용이 살아있는 수업

운영해 온 9명의 현직 교사들이 제작했다. 해당 영상은 1학기 원격수업에서 겪은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원격수업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을 토크 형식으로 담았고 ▲통통 통통하다 ▲볼 볼, Tool로 통하다 ▲生으로 만나는 실시간 수업 등 세 편으로 구성됐다.

"그웨이! 대세는 블렌디드!" 영상은 광주시교육청 유튜브 채널 '딩동댕 연수마당 (https://youtu.be/FkiW9uwwiY)'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기면 된다. /김도기 기자

예술감독 공석·불공정 오디션...광주시립예술단 '논란'

단원간 갑질·인격모독 등 각종 문제까지 불거져

광주의 일부 시립예술단 예술감독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 오디션', '단원간 갑질' 등 각종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2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 따르면, 광주시립예술단은 총 8개 단체로 교향악단·극단·오페라단·발레단·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국악관현악단·창극단이 있다.

이 중 교향악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예술감독은 각각 지난해 11, 12월 임기 만료했지만 10개월여가 지나도록 후임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오페라단은 지난 1월, 극단은 지난 4월 예술감독 임기가 종료된 이후 후임을 뽑지 않고 '작품별 감독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각 단체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예술감독이 수개월 동안 선임되지 않으면서 작품의 출연 배우를 뽑는

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성악가협회는 오페라단이 하반기 공연 예정인 박하사랑과 라보엠의 주요 배역 공개오디션이 불공정하게 진행됐으며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성악가협회는 "오디션 당일 광주 문화회관 관계자가 심사위원들의 체점 후 심의도 거치지 않은 결과를 가져갔다"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만큼 지역 성악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오디션은 전국단위로 이뤄져 지역 출신들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또 "라보엠 3억5000만원, 박하사랑 1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작품을 제작하고 있지만 연습, 의상, 무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약서조차 없는 상태"라며 문화회관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반

발하고 있다.

극단에서는 연극 '전우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근단원과 객원단원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광주시립극단의 작품 전우치에 출연한 조연출과 배우들은 "상근단원 등으로부터 부당업무 강요, 인격모독, 성희롱을 당했다"며 "업무의 지시가 수시로 이뤄졌고 일부 배우는 연습 도중 부상을 입었지만 치료비도 받지 못했으며 폭언까지 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조연출과 배우들은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광주시읍무브즈맨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광주문화회관 관계자는 "좋은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전국단위 오디션을 치렀다"며 "지역 성악가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고 답했고, 극단의 갈등에 대해서는 "광주시읍무브즈맨이 조사를 하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했다. /한동주 기자

북구 주민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작가팀 공모

북구가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주민 문화향유 증진에 나선다

북구는 2021년 2월까지 문흥동 지하보도 일원에 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우리 동네 미술'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북구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과 함께 다양한 유형의 미술활동을 통해 지역의 공공장소를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오는 8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37명 이상으로 구성된 작가팀을 공모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신청자격은 대표자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및 소지 가능한 자로 팀의 작가는 지역 미술인으로 활동하고 있어야 하며 회계처리 등이 가능한 행정 지원 인력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공모내용은 ▲벽화·조각·회화·아트갤러리 등 작품설치형 ▲문화공간 조성 및 전시형 ▲거리 편의 시설 조성 등 도시재생형 ▲주민참여 공동체 프로그램형 등이다.

신청방법은 북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관련 서류를 문화예술과(062-410-6620)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성남 기자

전남 청년사업가들 '향토자원 세계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5명 선정...창업육성 내실 지원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나주 피어크리에이티브그룹 김창용 대표, 광양 매실꽃달아 김은영 대표, 곡성 량이 이지혜 대표, 곡성 ㈜트루미랜드 김진우 대표, 무안 팜스뱅크 이세운 대표.

전남지역의 풍부한 농수특산물 자원을 활용해 특색 있는 아이디어로 향토기업 제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청년창업자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향토 자원 제품의 세계화를 위한 날개를 달았다.

2일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나주 피어크리에이티브그룹 김창용(32) 대표는 미디어커머스를 활용, 유튜브와 SNS를 통해 향토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해 지역 기업들의 매출 신장과 경쟁력 향

보에 기여하고 있다.

광양 매실꽃달아 김은영(35) 대표, 곡성 량이 이지혜(32) 대표, 곡성 ㈜트루미랜드 김진우(27) 대표, 무안 팜스뱅크 이세운(27) 대표, 이들은 모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우수 향토청년사업가로 선정된 청년 창업자들이다.

진흥원은 전남 향토자원 육성과 인프라구축,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연말까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향토자원 활용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여성가족재단, 체육계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 대책' 일환으로 전남 체육 선수단 운영 초·중·고 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체육계 미투 운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뿌리 깊은 성

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폭력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 하에 추진하게 되었다.

전남 22개 시·군 체육선수단 운영 초·중·고 학생과 지도자다.

교육 내용은 ▲성인권 감수성 점검 ▲체육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성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생각 나누기 토론 ▲체육분야 성폭력 실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내용 ▲온·오프라인 피해 상담·신고 전문 기관 정보 등으로 구성했다.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